

외래어 표기 양상의 변천

박창원 · 김수현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국어문화학교 강의전담 교수)

1. 서론

1.0. 본고는 외국어가 국어에 수용되어 외래어가 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표기 양상의 변화를 주제와 시대별로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어가 국어의 음운 체계에 맞춰 문자화되는 원칙의 변화를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외래어 표기법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1.1. ‘외래어’는 외국과의 접촉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 및 문물의 유입과 더불어 유입되어 자국어처럼 사용되는 언어를 지칭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주 이른 시기에는 중국과 접촉을 시작하면서 한자와 한자어가 유입되었다. 그리고 서구 문화와 본격적으로 접촉하기 시작하는 개화기에는 서구어가 각각 들어왔다. 한자를 받아들이고 한자어를 수용한 역사는 아주 오래되어 어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고유어처럼 사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보통 외래어를 지칭할 경우에는 이를 구분한다. 즉 우리말의 어종을 구분할 때에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구분하는 것이다. 한자

어 이외의 외래어는 1876년 서방에 문호를 개방한 이후 18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된다. 외국어가 유입되는 초기에는 그 표기법이나 표기 원칙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음운이나 동일한 조음 방식을 가진 일련의 음운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표기된다. 이는 외국어가 국어 어휘로 자리 잡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지만, 사회적인 약속이라는 기능적인 차원에서 표기를 바라본다면, 표기의 혼란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혼란은 표기법 제정의 필요성을 부각하여, 1933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외래어 표기 규정을 언급하게 되고, 여기서 천명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1941년에 공식적인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제정하게 된다. 그 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날의 표기법에 도달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우선 공식적인 표기법이 존재하지 않던 시기의 표기 양상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즉 최초의 공식적인 외래어 표기법인 1941년의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표기의 양상이 어떠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의 내용이 어떠한지 살펴본 후, 1948년의 <들은말 적는 법>, 1958년의 <로마 자의 한글화 표기법>을 거쳐, 1986년의 현행 <외래어 표기법>의 표기 원칙을 고찰하여 외래어 표기의 변천상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1.2. 본고의 제2장에서는 규정의 변화를 살펴 보기로 한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외래어 표기 규정에서부터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이르기까지의 표기 원칙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제3장부터 제6장까지는 자음과 모음 그리고 음장을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자음은 음절초와 음절말 자음의 표기를 구분하되 조음방식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모음은 국어와 일 대 일의 대응관계를 보이지 않는 모음에 한정하여 표기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음장의 표기가 규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잠깐 언급하기로 한다. 제7장은 결론으로 논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2. 규정의 변화

2.1.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의 외래어 표기 규정

특별한 원칙 없이 임의로 표기되던 외래어에 대해 그 원칙을 최초로 밝히는 것은 조선어학회(지금의 한글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 (1933)에 기술된 다음과 같은 규정이다.

제6장 제60항. 외래어를 표기할 적에는 다음의 조건을 원칙으로 한다.

1. 새 문자나 부호를 쓰지 아니한다.
2. 표음주의를 취한다.

새 문자나 부호를 쓰지 않는다는 규정은 외래어도 국어의 어휘이기 때문에 국어 표기에 쓰이지 않던 부가적인 기호를 새로 만들거나 도입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원음 표기를 지향하되 그 한계를 그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이전의 외래어 표기에서 표기자에 따라 사용하기도 했던 ‘ㄹ’, ‘ㄴ’ 등은 표기에 사용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표음주의를 취한다는 것은 이전의 혼란을 불러 왔던 철자에 의한 표기와 발음에 의한 표기 중에서 발음에 의한 표기로 대원칙을 확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후 외래어 표기의 큰 줄기가 된다.

2.2.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1941)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의 외래어 표기 규정은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¹⁾ 이에 따라 조선어학회를 중심으로 외래어 표기를 통일하고자 노력하여 1941년 최초의 체제와 원칙을 갖춘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이 제

정된다.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은 총칙과 세칙, 부록(2장 3절 17항)으로 구성된다. 제1장 총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1. 외래어를 한글 표기함에는 원어의 철자나 어법적 형태의 어떠한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표음주의로 하되, 현재 사용하는 한글의 자모와 자형만으로써 적는다.
2. 표음은 원어의 발음을 정확히 표시한 만국음성기호를 표준으로 하며, 아래의 대조표에 의하여 적음을 원칙으로 한다.2)

1항은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외래어 규정의 내용과 일치하며, 현행 <외래어 표기법>(1986)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2항은 원어의 발음을 국어의 음운체계에 따라 표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대조표를 제시한 것이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표기법 제정 이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던 [f]의

- 1) 예를 들어 이종극의 <모던조선외래어사전>(1937)의 경우 [f]와 [v] 표기에 ‘ㅍ, ㅍ’을 사용하는 등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의 규정과 달리 표기한 경우가 나타난다.
- 2) [만국음성 기호와 한글과의 대조표] - 김민수(1973) p.119 인용

[p] [ph] [p'] [f]	- ㅍ	[b] [v] [β]	- ㅂ	[p']	- ㅍ
[t] [th] [t']	- ㅌ	[d] [θ] [ð]	- ㄷ	[t']	- ㄷ
[k] [kh] [k'] [q]	- ㅋ	[g] [ð] [G]	- ㄱ	[k']	- ㄱ
[ts] [tʃ] [c] [ch]	- ㅊ	[z] [dz] [ʒ] [dʒ]	- ㅈ	[dʒ'] [ʃ] [ʒ]	- ㅈ
[s] [ʃ]	- ㅅ			[s']	- ㅅ
[n] [N]	- ㄴ	[m]	- ㅁ	[l] [r] [R]	- ㄹ
[ʋ]	- ㅇ	[ç] [x] [h]	- ㅎ		
[w] [ʍ]	- ㅍ	[j]	- (ㅣ)		
[i] [I]	- ㅣ	[e] [e]	- ㅔ	[æ]	- ㅔ
[a] [ɑ] [A]	- ㅏ	[v] [ɔ] [o]	- ㅛ	[u] [ʉ]	- ㅜ
[ə] [e] [ɜ]	- ㅓ	[ʉ]	- ㅡ	[ø] [œ]	- ㅓ
[y] [Y]	- ㅠ				

표기는 ‘ㅍ’으로, [v]는 ‘ㅂ’으로, [l]과 [r]은 ‘ㄹ’로의 표기가 확정된다.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1941)의 특징은 최초로 외래어 표기에 대해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제8항은 장음을 표기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제15항은 관용 형태에 관한 규정으로 “이미 널리 또는 오래 관습되어 아주 굳어진 어음은 굳어진 그대로 적는다”고 하여 표기법 제정 이전부터 사용되어 온 관용 표기를 인정하며 ‘고무(gum), 그리스도(Christ), 램포(lamp), 와이셔츠(white shirt)’를 예로 들었다.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1941)이 제정됨으로써 국어의 외래어 표기는 점차 안정된 모습을 보이게 된다.

2.3. <들온말 적는 법>(1948)

문교부가 제정한 외래어 표기법으로서 철저한 원음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원리는 한국인이 외국어를 직접 듣고서 이를 한글로 옮겨 적는 방법이 아니라, 외국어 화자 또는 세계의 언어학자들이 그 나라말의 소리를 국제 음성 기호로 옮겨 놓은 것에 의하여 그 소리표를 한글로 옮겨 적는 간접 방법이다.³⁾ 이는 각국의 말소리를 객관적으로 옮겨 적기 위한 것이다. <들온

3) [표기 일람표] - 김민수(1973) pp. 120~121 인용

[ph] [pʰ]	- ㅍ	[p]	- ㅂ	[pʰ] [b]	- ㅃ
[f]	- ㅍ (외)	[v] [β]	- ㅃ (외)		
[th] [tʰ]	- ㅌ	[t] [θ] [ð]	- ㄷ	[tʰ] [d]	- ㄸ
[kh] [kʰ]	- ㅋ	[k] [q] [C]	- ㄱ	[kʰ] [g] [G] [ð]	- ㄲ
[ch]	- ㅊ	[ts] [tʃ] [c] [ʃ]	- ㅈ	[dʒ] [dʒʰ] [dz] [ʃ]	- ㅉ
[ʒ] [ʒ]	- ㅊ	[s] [ʃ]	- ㅅ	[sʰ]	- ㅆ
[n] [N]	- ㄴ	[m]	- ㅁ	[l]	- ㄹ
[r] [R]	- ㄹ	[ʋ]	- ㄹ	[ç] [x] [h]	- ㅎ
[w] [ʷ]	- ㅍ	[j]	- ()		
[i] [I]	- ㅣ	[e] [ɛ]	- ㅐ	[æ]	- ㅑ

말 적는 법>의 표기 원리는 음성 기호를 소리로 바꿔 놓은 발음 전사법으로 이전에 제정된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1941)과 달리 외국어의 원음을 표기에 반영하기 위해 외래어 표기법 제정 이전에 보이던 한글 자모 이외의 글자나 부호를 사용한다. 즉 [f]를 ‘ㅍ (으)’, [v]와 [β]를 ‘빙(으)’으로, [z]와 [ʒ]를 ‘△ ’으로, [l]을 ‘ㄹ’로 표기한다. 또한 과일음의 된소리 표기를 인정하며, 장모음을 표기에 반영한다.

이와 같이 <듣은말 적는 법>(1948)의 원음주의에 의한 표기 체제는 새로운 문자나 기호를 사용하여 국어에 없는 음운을 표기하는 등 외래어 표기법 제정 이전의 단계로 되돌아간 상태가 되었으며, 원칙과는 별도의 표기가 존재하고⁴⁾ 전문적이며 복잡하여 일반인이 사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 표기법으로서 정착되지 못한다.

2.4. <로마 자의 한글화 표기법>(1958)

문교부는 1948년에 제정된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58년 <로마 자의 한글화 표기법>을 확정, 발표한다. 이는 1941년의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계승한 것으로 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외래어 표기에는 한글 정자법(正字法)에 따른 현용 24자모만을 쓴다.
2.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표기한다. 곧 이음이 여럿이 있을 경우라도 주음만을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⁵⁾

[a] [a]	- ㅏ	[v] [ɔ] [o]	- ㅓ	[u]	- ㅜ
[A] [ə] [e] [ɜ]	- ㅑ	[w] [w]	- ㅡ	[ø] [œ]	- ㅝ
[y] [y]	- ㅟ				

4) 예를 들어 불임에 ‘중국의 현재 인·지명은 원음대로 적고, 1911년 이전 역사상의 인·지명은 우리 한자음으로 적는다. 서양의 인·지명은 영어 발음으로 관용된 것은 그대로 따른다’ 등의 관용 표기가 존재한다.

3. 받침은 파열음에서는 ‘ㅂ, ㅅ, ㄱ’, 비음에서는 ‘ㅁ, ㄴ, ㅇ’, 유음에서는 ‘ㄹ’만을 쓴다.
4. 영어, 미어(美語)가 서로 달리 발음될 경우에는 그것을 구별하여 적는다.
5. 이미 관용된 외래어는 관용대로 표기한다.

1항과 2항은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1941)의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한 규정으로 이로써 국어에 없는 음을 표기하기 위하여 사용했던 새로운 문자는 외래어 표기에서 사라지게 된다. 대신 중복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국어의 기존 음운을 이용하여 외래어의 원음에 유사한 표기를 한다. 제3항은 외래어의 받침은 대표음으로 적되 ‘ㅅ’은 예외적으로 표기를 인정하고 있다. 제4항은 최초로 영·미어의 발음 구별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5항은 외래어 표기 원칙을 정함에 있어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이다.

2.5. <외래어 표기법>(1986)

현행 외래어 표기법은 전체 4장(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2장 표기 일람표, 제3장 표기 세칙, 제4장 인명·지명 표기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은 다섯 항으로 구성되며 그 원칙은 다음과 같다.

5) [표기 일람표] - 김민수(1973) p.122 인용

[a] [ɑ]	- ㅏ	[ɔ] [ʌ]	- ㅓ	[o] [ɔ]	- ㅜ	[u]	- ㅠ
[i] [ɪ]	- ㅣ	[æ] [a]	- ㅐ	[e] [ɛ]	- ㅔ	[ø] [œ]	- ㅖ
[y]	- ㅠ	[j]	- (ㅣ)	[w]	- (ㅗ)(ㅠ)		
[p] [f]	- ㅍ	[b] [v]	- ㅂ	[t]	- ㅌ	[d] [θ] [ð]	- ㄷ
[k]	- ㅋ	[g]	- ㄱ	[s]	- ㅅ	[h]	- ㅎ
[m]	- ㅁ	[n]	- ㄴ	[ŋ]	- ㅇ	[l] [r]	- ㄹ
[z] [dʒ]	- ㅈ	[ʃ]	- ㅊ	[ʒ] [dʒ]	- ㅉ	[tʃ]	- ㅊ, ㅉ
[dz]	- ㅉ	[ts]	- ㅊ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제2항,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ㄷ, ㅁ, ㅂ, ㅅ, ㅇ’ 만을 쓴다.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현행 <외래어 표기법>(1986)의 원칙은 제4항의 파열음 표기에 관해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로마자어의 한글화 표기법>(1958)와 동일하다. 즉 현행 <외래어 표기법>은 <로마자어의 한글화 표기법>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을 첨가하고 보완하여 재정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항은 외래어를 표기하기 위해 국어의 현용 24자모 외에 특별한 글자나 기호를 만들어서까지 그 원음을 충실하게 표기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외래어 표기는 일부 전문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것임을 명백히 제시하고 있다. 제2항은 외국어의 1음운이 음성 환경에 따라서 국어의 여러 소리에 대응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1음운 1기호의 원칙이 무리한 것이며, 이러한 때에 한해서 간혹 두 기호를 표기할 필요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원칙적으로’라는 단서를 붙인 것이다. 제3항은 외래어라 할지라도 국어의 말음 법칙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제4항은 파찰음이나 마찰음 표기에도 해당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단 파찰음이나 마찰음 표기에 중국어의 설치음과 일본어의 ‘쓰’의 표기가 허용되고 있으며 ‘겪, 뺨’ 등과 같은 파열음의 된소리 표기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제5항은 기원과 수용 경로가 다양하고 같은 단어라도 사용되는 분야에 따라 달리 발음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외래어를 특정한 규칙만을 내세워 일률적으로 표기하는 것은 언어 현실에 크게 어긋날 수 있고, 이미 굳어져 쓰이는 외래어의 표기를 고칠 경우 언어 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관용을 존중하는 것이다.

제2장 ‘표기 일람표’는 종전의 외래어 표기법에서 제시했던 내용에서 상당히 발전된 것으로 언어별로 열세 개의 표를 제시하고 있다. 제3장 ‘표기 세칙’은 제2장의 ‘표기 일람표’를 원칙으로 하여 표기하되, 개별 언어의 특수성은 별도로 세부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제4장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에서는 1절 표기 원칙, 2절 동양의 인명·지명 표기, 3절 바다·섬·강·산 등의 표기 세칙으로 구성된다.

3. 음절초 자음의 표기

3.1.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1941) 이전

일반적으로 유성 파열음은 경음(‘ㅅ’계 합용병서) 혹은 평음으로 표기되고, 무성 파열음은 주로 격음으로 표기되고 간혹 평음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마찰음은 특이한 부호를 만들어 표기하기도 한다.

3.1.1. 유성 파열음의 표기

원어에서 유성 파열음 /g, b, d/ 등이었던 외래어는 예 (1)과 같이 어두에서는 각각 ‘ㄱ, ㅂ, ㄷ’ 등의 ‘ㅅ’계 합용병서로 표기된다. 간혹 예 (2)와 같이 평음으로 표기한 것도 나타난다.

(1) 어두 초성의 ‘ㅅ’계 합용 병서 표기

- g - gas 까쓰(청춘.2.112)(청춘.2.66), 께쓰(청춘.9.118),
gallon 까론(청춘.10.100),
Guatemala 궤테말나(소년.12.99),
Gandhi 칸디(신동아.1931.12)/깐디(신동아.1931.12),
Gulliver 썰니버(소년.1.42)/썰니버(소년.2.21).

- b - bacteria 박테리아(동광.1926.10),
Balkan 발칸반도(대한.1909.2.26),
Belgium 벨기에(동광.1926.9),
boat 보트(소년.9.38)/보트(청춘.9.6),
boy 보이(동광.1926.6)(아학)(독립.5.146)/보이(소년.21.37),
Brazil 브라질(소년.12.99),
Britain 브리튼(소년.1.50)/브리튼 (소년.17.7)/브리튼(청춘.1.부.82),
Bismark 비스막(대한.1909.2.26).

- d - Dublin 더블린(청춘.1.부.82),
Darwin 다윈(소년.4.38)/다윈(청춘.1.110),
Deutschland 독일(소년.1.50)(동광.1926.8)/독일(소년.1.73).

(2) 어두 초성의 평음 표기

- g - gorilla 고릴라(독립.2.303).
- b - Brazil 브라질(독립.1.93).
- d - dynamite 다나마이트(독립.1.290),
Darwin 다윈(청춘.12.47).

한편 어중에서 /g, b, d/였던 외래어는 예 (4)와 같이 평음으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나 예 (3)과 같이 ‘ㅅ’계 합용병서로 표기하는 예가 보이는데 이는 어두에서의 표기와 동일하게 표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3) 어중 초성의 경음 표기

- g - Senegal 세네르까르(소년.7.47),
Uganda 우간다(소년.5.58),

Paraguay 파라와이(소년.12.99).

b - Luxemburg 룩셈부르크(소년.12.99),
Belgium 벨찌엄(동광.1926.9).

d - Macedonia 마케쏘니아(소년.12.125).

(4) 어중 초성의 평음 표기

g - Niagara 나야가라(소년.1.80)(청춘.1.부.89),
Negroid 네그로(청춘.1.32).

b - Columbus 콜넘버쓰(소년.1.76)/콜눔부쓰(소년.14.66),
Cuba 규바(독립.1.2),
Nobel 노벨(청춘.7.15),
Liberia 리베리아(소년.12.100).

d - radium 라디움(소년.17.3),
medal 메달(청춘.14.부.4).

어두에서 ‘ㅅ’계 합용병서로 표기되어 오던 유성 파열음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제정된 1933년 이후에는 예 (5)처럼 각자병서로 표기된다. 이는 이전 시기와 차이가 나는 표기상의 큰 특징으로 표기의 방식이 외래어에서도 통일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⁶⁾

(5) g - gallon 까론(신동아.1936.84),
gas 개스/깨스(모던),

6) 어휘에 따라 ‘gas 개스/깨스(모던), gasoline 개소린(모던)/까소린(조선어/모던)’ 등과 같이 경음과 평음의 동시 표기도 보인다.

gasoline 개소린(모던)/까소린(조선어/모던),
gum 껌(모던)(조선어).

b - banana 뽀나나(모던),
Balkan 빨칸제국(신동아.1936.81),
bacteria 박테리아(조선어),
bus 버스/빠스(모던),
baby 뽀비-(모던), boy 뽀이(조선어)(모던).

d - double 따불(모던)/(조선어)떠불(모던),
dollar 딸나/딸라/딸러(모던).

3.1.2. 무성 파열음의 표기

파열음 [k]는 예 (6)과 같이 어두, 어중에서 ‘ㄱ’으로 표기하며, 파열음 [p]는 예(7)과 같이 어두에서 ‘ㅍ, 표’으로, 어중에서는 ‘표’으로 표기한다. 또한 파열음 [t]는 예 (8)과 같이 어두와 어중에서 ‘ㅌ’으로 표기한다.

(6) [k]의 표기

ㄱ. 어두 음절초 격음 표기

Canada 카나다(대한.1910.7.4)/캐나다(소년.4.14),
Kentucky 키틱기(독립.1.130)/켄터키(소년.13.8),
kiss 키쓰(소년.14.53)/키이쓰(소년.10.60)/킷스(소년.17.50).

ㄴ. 어중 음절초 격음 표기

Moskva 모쓰크야(청춘.1.부.44),
Balkan 쉘칸반도(대한.1909.2.26),
Eskimo 에쓰키모(조선어).

(7) [p]의 표기

ㄱ. 어두 음절초 격음 혹은 평음 표기

- Paraguay 파라과이(소년.12.99),
- Paul 바울(소년.6.24),
- Pennsylvania 변실바니아(국민.38),
- Peru 페루(소년.12.99),
- Panama 파나마(소년.3.60),
- popular 포푸라(청춘.8.74)/포플라(청춘.6.118),
- pyramid 피라밋(소년.1.74).

ㄴ. 어중 음절초 격음 표기

- Napoleon 나폴레온(소년.1.7),
- Constantinople 콘스탄치노플(소년.4.46)(청춘.14.부.78)/콘스탄티노플(소년.2.55)(청춘.1.부.52).

(8) [t]의 표기

ㄱ. 어두 음절초 격음 표기

- table 테불(모던),
- Times 타임스(독립.3.62).

ㄴ. 어중 음절초 격음 표기

- dynamite 다나마이트(독립.1.290),
- Latin 라틴(소년.9.37),
- bacteria 싹테리아(동광.1926.10),
- Britain 썬릿텐(소년.1.50)/썬리티취(소년.17.7)/썬리텐(청춘.1.부.82).

3.1.3. 마찰음의 표기

(1) 마찰음 [s]의 표기

외래어를 유입하기 시작하는 초기에는 마찰음 [s] 뒤에 모음이 이어지는 경우 예 (9)와 같이 위치에 구분없이 대체적으로 된소리로 표기한다. 어말인 경우에는 모음을 첨가하지만 된소리로 표기하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예 (10)과 같이 평음으로 표기한 예도 상당수 눈에 띈다. 이는 영어 [s]의 이음을 구분하여 국어로 표기함에 있어,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기가 통일되지 않은 것이다.⁷⁾ 이와 같이 마찰음 [s]를 국어의 ‘ㅅ’과 ‘ㅆ’으로 구별하여 표기하려는 현상은 외국어음을 국어의 음운 체계에 맞게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으로 보인다.

한편 (9ㄷ)과 (10ㄷ)의 ‘James 제임쓰(대한.1909.10.1), Charles 찰쓰(대한.1909.10.2), Times 타임쓰(대한.1906.8.17)/타임스(독립.3.62)’의 경우 발음기호는 [dʒejmz], [tʃairlz], [taimz]로 이를 ‘ㅅ’이나 ‘ㅆ’으로 표기하는 것은 외국어 원어의 철자를 표기에 반영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9) 경음 표기

ㄱ. 어두

Samoa 싸모아(소년.3.18),

San Marino 썬마리노(소년.1.64),

service 씨비스(동광.1926.6)/씨-비스(모던)/썰비스(모던)/씨-뷔스(모던),

son 썬(아학),

sale 쎄일(모던),

Sydney 씨드니(대한.1908.5.30),

7) 국어에서 별개의 음소인 ‘ㅅ’과 ‘ㅆ’은 영어에서는 상보적 분포에 해당하는 이음이 된다. 전상범(1995 : 131)에는 영어의 [s]는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발음되어 ‘sound’나 ‘sink’와 같은 강세모음 앞에서는 ‘ㅆ’으로 발음되지만 자음 앞(spend)이나 약세모음 앞(pencil), 어말(peace)에서는 ‘ㅅ’으로 발음된다고 한다.

system 씨스템(모던)/씨스텨(조선어),
single 씩글(조선어).

나. 어중

SanFrancisco 썩인프란씨스코(독립.6.477),
Shakespeare 쇠익스피어(소년.14.28),
Austria 오썩트리아(소년.4.55),
Eskimo 에썩키모(조선어), text 텍썩트(조선어).

ㄷ. 어말

James 썩임썩(대한.1909.10.1),
Charles 찰썩(대한.1909.10.2),
Columbus 콜럼버썩(대한.1909.9.16),
Times 타임썩(대한.1906.8.17),
France 프랑썩(소년.1.66)(청춘.1.17)/뢴랑썩(소년.2.21),
boss 보썩(조선어),
case 케썩(조선어),
Venice 베니썩(소년.2.56)/베너썩(소년. 12.86),
kiss 키이썩(소년.10.60)/키썩(소년.14.53).

(10) 평음 표기

ㄱ. 어두

Samoa 사모아(독립.5.88),
sports 스포썩(신동아.1936.6)/스포-츠(신동아.1936.67).

나. 어중

Shakespeare 썩트스비아(대한.1908.12.18)/쇠익스피어(소년.15.65),
Austria 오슈트리아(독립.1.34),

Eskimo 에스키모(모던),
text 텍스트(모던).

ㄷ. 어말

bonus 보너스(조선어),
boss 뽀스(모던),
service 서비스(조선어),
sex 섹스(조선어),
sense 센스(조선어),
case 케-스(모던),
kiss 킷스(소년.17.50),
Times 타임스(독립.3.62).

(2) 마찰음 [f]의 표기

[f]는 국어에 없는 음운으로 이와 유사한 국어음에 대응시켜 주로 ‘ㅍ’으로 표기하나 예 (11)과 같이 어두에서 ‘ㅍ, ㅎ, ㅍ’으로, 어중에서는 ‘ㅍ, ㅍ’으로 다양하게 표기되는 예를 발견할 수 있다. 즉 [f]를 ‘ㅍ’으로 표기하는 것은 파열음 [p]와 동일한 표기 형태가 된다. 따라서 [p]와 [f]를 구별하여 표기의 혼란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ㅎ’으로 표기하거나, 한글 자모 이외의 글자를 이용하여 표기한다. 예를 들어 <아학편>(1908)과 <모던조선외래어사전>(1937) 등에서는 ‘fight 싸이트(아학), foul ball 싸울뽀(모던)’과 같이 ‘ㅍ’으로 표기한다.

(11) ㄱ. 어두

Faust 파우쓰트(소년.8.6),
foul ball 싸울뽀(모던),
fight 싸이트(아학),

fine ㅍ인(모던),
 face ㅍ이스(모던)/ㅍ이스(아학),
 fry 푸라이(조선어)/푸라이(모던),
 friend 푸렌드(조선어)/푸렌드(모던),
 frock coat 푸로코트(대한.1909.4.15)/프록코트(청춘.1.114),
 France ㅍ란쓰(동광.1926.9)/프랑쓰(소년.2.21),
 Finland 핀란드(소년.2.66)/핀랜드(소년.4.47).

ㄴ. 어중

left fielder 레^ㄴ트^ㄴ엘더(청춘.1.124),
 muffler 머폴리(모던),
 Afghanistan 아푸칸이스탄(대한.1910.2.23),
 Africa 아프리카(신동아.1936.46),
 Sofia 쏘피아(소년.2.55),
 Trafalgar 트라팔까아(소년.6.27)/트라팔까(소년.18.6),
 platform 플레트폼(동광.1926.5).

(3) 마찰음 [v]의 표기

마찰음 [v]는 어두에서는 ‘ㅂ, ㅍ’으로 표기하며, 어중에서는 ‘ㅍ’으로 표기한다. [v]는 [f]와 함께 국어에 없는 음으로 그 음을 정확히 표기하기 위해 ‘ㅍ’과 같은 한글 자모 이외의 문자를 이용하여 표기한 것이다. 그러나 문헌에 따라 표기 형태가 달라 표기상에 혼란이 보인다.

(12) ㄱ. 어두

Versailles ㅍ에르사이으(동광.1926.8),
 Wolfgang ㅍ^ㄴㅇ강(신동아.1931.85),
 Voltaire ㅍ테르(소년.2.21),

vitamin 비다민(모던)/비타민(동광.1926.5)(동광.1926.9)(조선어)/
에타민(모던).

나. 어중

Moskva 모스크바(청춘.1.부.44),

silver 실버(아학).

3.2.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1941)

3.2.1. 유성 파열음의 표기

유성 파열음 [b] [d] [g]는 어두, 어중, 어말에 모두 ‘ㅂ, ㄷ, ㄱ’으로 적는다.

(13) 어두 : gardener 가드너, game 게임, day 데이, Bombay 봄베이.

어중 : Madrid 마드리드, handbag 핸드백, sabotage 사보타지.

어말 : Rugby 럭비.

이 시기의 파열음은 대조표에 된소리 표기를 인정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세칙의 예시에는 없고 부록으로 제시한 일본어음의 표기에 예 (20)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14) Tokyo(東京) 도오쿄오(도오쿄 허용), red(赤) 아까.

3.2.2. 무성 파열음의 표기

무성 파열음 [p] [t] [k]는 ‘만국음성 기호와 한글과의 대조표’에 제시한 대로 어두, 어중에서 ‘ㅍ, ㅌ, ㅋ’으로 표기하고, 어말에서 모음이 첨가되어 음절초로 되는 경우 역시 동일하다.

(15) ㄱ. 어두

pulp 팔프, pamphlet 팜플레트, pen 펜, program 프로그램.
 cream 크림, cleaning 클리닝, kilo 킬로, town 타운, type 타이프.

ㄴ. 어중

Shakespeare 셰익스피어, restaurant 레스토랑, Vitamin 비타민,
 sabotage 사보타지, alkali 알칼리.

ㄷ. 어말(의 모음 첨가)

soup 수프, sharp 샤프, mark 마크.

3.2.3. 마찰음의 표기

[f]는 ‘ㅍ’으로, [v]는 ‘ㅂ’으로, [s]는 ‘ㅅ’으로 표기한다.

(16) Finland 핀란드, film 필름,

Vitamin 비타민,

sabotage 사보타지, Boston 보스턴, soft 소프트, stove 스토브.

3.3. <들온말 적는 법>(1948)

3.3.1. 유성 파열음의 표기⁸⁾

유성 파열음의 경우 표기 원칙에 의하여 어두에는 된소리, 어중에는 평

8) 2장 1절에 파열음의 표기 체계를 다음과 같이 표로 명시한다.

한글 \ 소리표	거센 맑은 흐린			거센 맑은 흐린			거센 맑은 흐린		
	kh	k	g	th	t	d	ph	p	b
첫소리	ㅋ	ㄱ	ㆁ	ㅌ	ㄷ	ㄸ	ㅍ	ㅂ	ㅃ
흐린소리의 사잇소리	ㅋ	ㆁ	ㄱ	ㅌ	ㄸ	ㄷ	ㅍ	ㅃ	ㅂ
끝소리	ㅋ	ㄱ	ㄱ	ㅌ	ㄷ	ㄷ	ㅍ	ㅂ	ㅂ

음으로 표기를 하며 어말에는 받침으로 ‘g, d, b’ 각각 ‘ㄱ, ㄷ, ㅂ’으로 표기한다. 이는 외국어 원음을 표기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 표기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 (17) 어두 : game 게임, glass 글라아스, Dante 단떼, bible 바이블.
어중 : Uruguay 우루과이, andante 안다안떼, Bombay 뽀뽀이.
어말 : handbag 핸드백, episode 에삐소운, club 글럽.

3.3.2. 무성 파열음의 표기

표기 원칙에 따라 ‘k, t, p’는 어두에서는 ‘ㄱ, ㄷ, ㅂ’으로 적고, 어중에서는 ‘ㄱ, ㄷ, ㅂ’으로 적는다. 어말에서는 각각 ‘ㄱ, ㄷ, ㅂ’으로 적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표기법의 원칙을 설명하면서 제시한 어두의 예에서 ‘Paris 빠리, tent 텐뜨’와 같이 된소리와 거센소리로 표기한 예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면 원칙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8) 어두 : Paris 빠리, Peru 베루, chorus 고오러스, Tolstoy 돌스또이, tent 텐뜨.
어중 : Tolstoy 돌스또이, Einstein 아인슈타인, alkali 알칼리, episode 에삐소운, stove 스토우옌.
어말 : cognac 고탕, book 북, hat 헨, cup 컵.

3.3.3. 마찰음의 표기

마찰음의 표기는 이 시기의 가장 대표적인 표기의 특징으로 [f]는 ‘ㅍ(ㅍ)’으로, [v]는 ‘ㅍ(ㅍ)’으로 적는다. 이는 외국어 원음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목적에 근거한 것이기는 하나 표기의 발전적인 경향과 상반되는 현상으로 파악된다.

- (19) film 엘름, left 페엠티.
 stove 스토우앤, Versailles 뵐사아유.

3.4. <로마 자의 한글화 표기법>(1958)의 표기 양상

3.4.1. 유성 파열음의 표기

표기 일람표에 [b]는 ‘ㅂ’, [d]는 ‘ㄷ’, [g]는 ‘ㄱ’으로 적도록 명시되어 있다.

- (20) 어두 : baby 베이비, day 데이, game 게임, gasoline 가솔린.
 어중 : radio 라디오, program 프로그램, Babylonia 바빌로니아.
 어말 : big 비그(빅), dog 도그(독), Europe 유럽, Pyramid 피라밋(피라미드), record 레코오드.

() 안은 허용 표기

파열음 표기에서 주의할 점은 표기 원칙에 파열음이 어말에 올 경우 ‘으’ 모음을 붙여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모음이 선행할 때는 모음 ‘으’를 붙이지 않은 수도 있으며, ‘으’를 안 붙일 때는 ‘ㄱ, ㅂ, ㅅ’만으로 적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어휘를 받침으로 표기하기도 모음 ‘으’를 붙여서 표기하기도 하여 표기상의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

3.4.2. 무성 파열음의 표기

표기 일람표에 [p]는 ‘ㅍ’, [t]는 ‘ㅌ’, [k]는 ‘ㅋ’으로 적도록 명시하고 있다. 단 파열음이 어말에 올 경우 ‘으’ 모음을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ㅂ, ㅅ, ㄱ’ 받침으로 적는 것도 허용하여 표기상에 혼란이 발생한다. 이 시기 파열음 표기의 특징은 전 시기의 <들은말 적는 법>(1948)에서 표기하였던 된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로써 국어의 외래어 표기에서 된소리 표기는 원칙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21) 어두 : Paris 파리, pin 핀, tomato 토마토, Christmas 크리스마스,
cosmos 코스모스.

어중 : Alps 알프스, Eskimo 에스키모, Scotland 스코틀랜드.

어말 : keep 키이프(키입), heart 하아트(하앗), concert 콘서트(콘섯),
make 메이크(메익), trick 트릭(트릭).

3.4.3. 마찰음의 표기

표기 일람표에 [f]는 ‘ㅍ’으로, [v]는 ‘ㅂ’으로 적도록 명시되어 있다. 다만, 어말에 오거나 자음 앞에서는 ‘으’ 모음을 붙여 적는다. 이 시기 마찰음 표기의 특징은 전 시기에 사용했던 ‘ㅍ’, ‘ㅂ’ 등의 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국어의 자모만으로 표기한다는 점이다.

(22) five 파이프, form 포움(폼), knife 나이프, golf 골프.

voice 보이스, violin 바이올린, vitamin 비타민.

3.5. <외래어 표기법>(1986)의 표기 양상

3.5.1. 유성 파열음의 표기

자음의 경우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에 모음 앞과 자음 앞 또는 어말에 오는 경우로 양분하여 표기 원칙을 제시한다. 유성 파열음 ‘b, d, g’는 모음 앞에서는 ‘ㅂ, ㄷ, ㄱ’으로 적고, 자음 앞 또는 어말에서는 ‘브, 드, 그’로 적는다. 이와 같이 <외래어 표기법>(1986)은 자음의 위치에 따라 표기를 달리하는 것과 파열음의 표기에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명시하여 표기상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23) ㄱ. 모음 앞

gas 가스, gown 가운, gang 갱, down 다운, dollar 달러, dance 댄스,
double 더블, bag 백, band 밴드, bus 버스, bonus 보너스.

ㄴ. 자음 앞 또는 어말

bubble 버블, bulb 벌브, land 랜드, arcade 아케이드, signal 시그널,
analog 아날로그.

3.5.2. 무성 파열음의 표기

무성 파열음 ‘p, t, k’는 모음 앞에서는 ‘ㅍ, ㅌ, ㅋ’으로 적고, 자음 앞 또는 어말에서는 ‘ㅂ, ㅌ/ㅍ, ㅌ/ㄱ, ㅋ’으로 적도록 규정되어 있다.

(24) ㄱ. 모음 앞

Paris 파리, part 파트, time 타임, tower 타워, kangaroo 캥거루,
kilo 킬로.

ㄴ. 자음 앞 또는 어말

beef 비프, stamp 스탬프, knit 니트, part 파트, link 링크, fork 포크,
gap 갭, cat 캣, book 북.

예 (24ㄱ)의 경우 무성 파열음을 받침으로 적는 경우와 음절 ‘으’를 붙여 적는 경우를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와 관련하여 제3장에 언어별로 표기 세칙을 제시한다. 제3장 제1절은 영어 표기에 관한 조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영어의 경우 ‘gap[gæp] 갭, cat[kæt] 캣, book[buk] 북’과 같이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은 받침으로 적는다. 또한 ‘apt[æpt] 앵트, setback[setbæk] 셋백, act[ækt] 액트’와 같이 짧은 모음과 유음·비음 이외의 자음 사이에 오는 무성 파열음은 받침으로 적는다. 이와 같은 경우 이외의 어말과 자음 앞의 ‘p, t, k’는 ‘으’를 붙여 적도록 규정한다.

3.5.3. 마찰음의 표기

마찰음 ‘f’는 모음 앞에서는 ‘ㅍ’으로, 자음 앞 또는 어말에서는 ‘프’로 적는다. ‘s’는 모음 앞에서는 ‘ㅅ’으로, 자음 앞 또는 어말에서는 ‘스’로 적는다.

- (25) ㄱ. fighting 파이팅, fantasy 판타지, file 파일, muffler 머플러, friend 프렌드, golf 골프, harp 하프.
- 나. sauna 사우나, sign 사인, sandwich 샌드위치, service 서비스, sale 세일, gas 가스, dance 댄스, bus 버스.

4. 음절말 자음의 표기

4.1.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1941) 이전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국어의 받침으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7자음을 사용한다.⁹⁾ 종성 위치에서 ‘ㄲ’이 ‘ㅂ’으로, ‘ㅌ, ㅍ, ㅆ, ㅈ, ㅊ’이 ‘ㄷ’으로 ‘ㄱ, ㅋ’이 ‘ㄱ’으로 중화 내지는 불과화한 데에 기인한다. 따라서 종성 위치의 ‘ㄲ’과 ‘ㄱ, ㅋ’을 발음에 따라 각각 ‘ㅂ’과 ‘ㄱ’으로 표기한다. 다만 ‘ㄷ, ㅌ, ㅍ, ㅆ, ㅈ, ㅊ’은 ‘ㄷ’으로 표기하지 않고 ‘ㅅ’으로 표기한다. 이는 근대 국어에서부터 ‘ㅅ’과 ‘ㄷ’을 혼기하다가 18세기부터 ‘ㅅ’으로 통일하여 표기한 것이 이 시기에도 동일하게 나타난 결과로 여겨진다.¹⁰⁾ 이와 같은 표기 경향은 외래어에도 동일하게 반영되어

9) 찍어먹으되(국민.36), 혼쪽만(독립.1.1), 쓸기름(대한.1907), 남쪽(독립.1), 입식(국민.7), 꽃(국민.9), 쌍을(대한.1907.7.2).

10) ‘ㅅ’과 ‘ㄷ’의 혼기 현상은 16세기부터 시작된다. 이익섭(1992)에 의하면 ‘ㅅ’을 ‘ㄷ’으로 바꾸어 표기하던 시대를 거쳐 17세기 초반을 지나면 그 방향이 바뀌어 ‘ㄷ’을 ‘ㅅ’으로 표기하는 예가 많아진다고 한다. 한편 지춘수(1986)에서는 7종성에서 ‘ㄷ’

예 (14)와 같이 7개의 자음을 받침으로 사용하게 된다.

- (26) ㄱ : text 텍스트(조선어), Luxemburg 룩셈부르크(소년.12.99).
- ㄴ : London 논문(독립.1.234)/론돈(독립.3.62),
 Saint Helena 세인트헬레나(소년.1.26).
- ㄹ : muffler 머플러(모던), table 테이블(모던).
- ㅁ : gum 껌(아학), Times 타임쓰(대한.1907.5.23)/타임스(독립.3.62).
- ㅂ : top 톱(아학).
- ㅅ : kiss 키스(소년.17.50), pyramid 피라미트(소년.1.74).
- ㅇ : single 싱글(아학), France 프랑쓰(소년.2.21).

그러나 점차 7개의 자음 이외에 예 (15)와 같이 ‘ㄷ, ㅋ, ㅌ, ㅍ, ㄹ’ 등의 여러 자음이 외래어의 받침으로 사용하게 된다. 즉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외래어 표기는 ‘표음주의’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정착되지 않고 외국어 원어의 철자에 의해 표기된 ‘긴도(모던), 엑스트라(모던), 컵(조선어)’ 등과 같은 어휘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이다.

- (27) ㄷ : kid 긴도(모던), bed 뺨(동광.1926.10), pyramid 피라미트(조선어).
- ㅋ : sex 썩스(모던), extra 엑스트라(모던), truck 트럭(조선어).
- ㅌ : night 나일(모던), cut 컷(조선어).
- ㅍ : group 그륵(조선어), cup 컵(조선어)/컵푸(모던),
 typewriter 타이우라이터(동광.1926.9).
- ㄹ : Marx 맑스(동아.1928.1.1)(동아.1922.7.10),
 Bismarck 씨스맑(동광.1926.10), Hamburg 함북(동광.1926.10).

이 ‘ㅅ’으로 바뀐 것은 18세기 무렵부터였고 19세기에는 이미 ‘ㅅ’이 7종성 속에 확고히 자리잡았을 것이라 한다.

4.2.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1941)

제2장 제1절 제4항은 파열음의 받침 표기에 관한 조항으로 모음이 따르지 않는 파열음은 홀소리 ‘ㄱ’을 붙이어 적음을 원칙으로 하되(‘Madrid 마드리드, mark 마크’), 파열음의 앞이나 마찰음의 앞에는 위 음절의 받침으로 적도록(‘napkin 냅킨, good-bye 굿바이’)하며, 받침은 대표음에 의한 표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항에 받침은 ‘ㄱ, ㅋ’은 ‘ㄱ’으로, ‘ㅃ, ㅍ’은 ‘ㅃ’으로, ‘ㄷ, ㅌ, ㅌ, ㅍ, ㅆ, ㅈ, ㅊ’은 ‘ㅈ’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대표음에 의한 표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8) ㄱ : direct 디렉트, taxi 택시.
- ㄴ : engine 엔진, bench 벤치.
- ㄷ : mail 메일, cycle 사이클.
- ㅁ : prism 프리즘, champion 챔피언.
- ㅂ : napkin 냅킨, subject 삽젝트.
- ㅅ : good-bye 굿바이, kassa(伊) 캣사.
- ㅇ : single 싱글, English 잉글리쉬.

4.3. <들온말 적는 법>(1948)

받침은 이전 시기의 대표음을 적는 원칙과는 달리 철자의 영향으로 다양한 표기 형태가 나타난다.

- (29) ㄱ : book 북, cognac 고냉.
- ㄴ : tent 텐뜨, cent 셴뜨.
- ㄷ : episode 에삐소웁, Madrid 마드릴.

- ㄹ : alkali 알칼리, bible 바이블.
- ㄹ : game 게임, film फिल्म.
- ㅂ : club 클럽, cup 컵.
- ㅅ : kassa 카사.
- ㅇ : chewinggum 쥬우잉검, English 잉글리쉬.

4.4. <로마 자의 한글화 표기법>(1958)

받침은 표기 원칙 제3항에 ‘ㄱ, ㄴ, ㄹ, ㅁ, ㅂ, ㅅ, ㅇ’ 만을 쓰도록 명시하고 있다.

- (30) ㄱ : truck 트럭, bacteria 박테리아.
- ㄴ : Denmark 덴마크, vitamin 비타민.
- ㄹ : alcohol 알코홀, olive 올리브.
- ㅁ : dram 드램, rhythm 리듬.
- ㅂ : cup 컵, helicopter 헬리콥터.
- ㅅ : socket 소켓, doughnut 도우넛.
- ㅇ : ink 잉크, building 빌딩.

4.5. <외래어 표기법>(1986)의 표기 양상

받침은 표기 원칙 제1장 제3항에 ‘ㄱ, ㄴ, ㄹ, ㅁ, ㅂ, ㅅ, ㅇ’으로 적도록 규정한다. 받침에 관한 조항은 <로마 자의 한글화 표기법>(1958)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후 줄곧 지켜지고 있다.

- (31) ㄱ : book 북, accessory 액세서리.
- ㄴ : vision 비전, hint 힌트.

- ㄹ : hotel 호텔, film 필름.
- ㅍ : time 타임, team 팀.
- ㅂ : gap 갭, cup 컵.
- ㅅ : boycott 보이콧, carpet 카펫.
- ㅇ : ring 링, ink 잉크.

5. 모음의 표기

5.1.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1941) 이전

5.1.1. 단모음의 표기

모음 [ə], [ʌ]로 발음되는 외국어를 한글 자모로 표기할 경우 ‘ㅏ’로 표기하는 현상이 여러 문헌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표기는 예 (32)과 같이 주로 1920년대와 1930년대 문헌에 나타난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일본 외래어의 영향에 의한 표기 형태로도 볼 수 있고, 국어의 특징인 모음조화와의 관련으로도 볼 수 있다.

- (32) dollar[dalər] 딸나(모던)/딸라(모던)/딸라(동아.1921.4.18)/딸러(모던),
- bus[bʌs] 빠스(모던),
- slogan[slogən] 슬로간(신동아.1936.9),
- air[ɛər] 에아(아학),
- Waterloo[wɔ:təri] 워타-루(동아.1921.3.18),
- coffee[kɔ:fi] 카피(조선어),
- college[kɔ:lɪdʒ] 칼레지(조선어),
- high collar[kalər] 하이카라(동광.1926.6),
- hair [hɛər] 헤아(아학).

5.1.2. 이중모음의 표기

이 시기는 이중모음 [ei]를 예 (17)과 같이 단모음 [e]로 발음하여 그 발음대로 표기하는 경우가 여러 문헌에서 발견된다. 이는 음절 간이화 현상으로도 볼 수 있고, 외래어 표기법이 존재하지 않아서 문헌마다 정확한 원음에 의한 표기가 아닌 청각 인상에 의해 표기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 (33) table[teibl] 테블(모던), race[reis] 레쓰(조선어), baby[beibi] 뻬미(조선어),
 baseball[beisbo:l] 뻬스뵐(동광.1926.9), base[beis] 뻬쓰(조선어),
 brain[brein] 썬렌(아학), Saint Helena[seint helena] 썬트헬네나(소년.1.26),
 space[speis] 스페쓰(조선어), cable[keibl] 케블(조선어)/케-블(모던),
 case[keis] 케쓰(조선어), cake[keik] 케크(아학),
 pavement[peivmønt] 페브먼트(조선어),
 page[peidʒ] 페지(동광.1926.5)(조선어), paper[peipəp] 페퍼(조선어).

5.2.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1941)

5.2.1. 단모음의 표기

‘만국음성 기호와 한글과의 대조표’에는 모음 [ə]는 ‘ㄹ’, [ʌ]는 ‘ㅏ’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ʌ]의 ‘ㅏ’ 표기로 이는 전 시기와 다른 표기 형태이다.

- (34) bonus [bounəs] 보너스, earth [ə:θ] 어드.
 umpire [ʌmpaiə] 암파이어, London [ʌndən] 런던.

5.2.2. 이중모음의 표기

제2장 제2절 제9항에 이중모음은 두 홀소리로, 삼중모음은 세 홀소리로 적되, ou만은 한 홀소리 ‘o’로 적고, 발음을 길게 읽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35) bonus [bounəs] 보너스, Mexico [meksikou] 멕시코.

5.3. <들온말 적는 법>(1948)

5.3.1. 단모음의 표기

[ʌ]는 ‘u’로 적고, [ə]는 ‘u나 ㅡ’로 표기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ə]의 ‘ㅡ’ 표기는 예를 발견할 수 없었다.

(36) club[klʌb] 클럽, homorun[houmrʌn] 호움런, bonus[bounəs] 뽀우너스, hour[auə] 아우어.

5.3.2. 이중모음의 표기

제2장 13항에 두겹 홀소리는 두 홀소리로, 세겹 홀소리는 세 홀소리로 적는다고 명시한다.

(37) home[houm] 호움, bonus[bounəs] 뽀우너스, hour[auə] 아우어.

5.4 <로마 자의 한글화 표기법>(1958)

모음의 표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최초로 표기 원칙에 영어, 미어(美語)가 서로 달리 발음될 경우에는 구별하여 적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5.4.1. 단모음의 표기

단모음의 표기는 표기 원칙에 영어와 미어(美語)의 경우를 구분하여 제시한다. 단모음 [ə]와 [ʌ]는 영어, 미어 모두 ‘어’로 적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이 표기 원칙을 지켜 표기하고 있으나 ‘cholera[kɔləɾə] 콜레라’와 같이 [ɔ]를 ‘케’나 ‘ㅏ’로 표기한 관용 표기의 예도 존재한다. 이는 철자에 의한 표기 방법으로 이와 같은 관용 표기는 표기 원칙 제5항에 따로 명시하고 있다.

- (38) girl[ɡɜ:l] 거얼(걸), concert[kɔnsət] 콘서트(콘셋), London[lʌndən] 런던,
bus[bʌs] 버스, compass[kʌmpəs] 컴퍼스, cholera[kɔləɾə] 콜레라.

5.4.2. 이중모음의 표기

이중모음의 표기는 표기 원칙에 영어와 미어(美語)의 경우를 구분하여 제시한다. 예 (39ㄱ)과 같이 영어의 이중모음 ‘ei, ai, oi, au, ou, ia, ea, oa, ua’는 각각 ‘에이, 아이, 오이, 아우, 오우, 이어, 예어, 오어, 우어’로 적는다. 예 (39ㄴ)과 같이 미어(美語)의 이중모음은 ‘ai, oi, au’를 ‘아이, 오이, 아우’로 적는다. 이에 따라 이중모음 [ou]는 ‘오우’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예 (39ㄷ)과 같이 [ou]를 ‘오’로 표기한 예가 발견되어 원칙과 실제 표기상의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 (39) ㄱ. day[deɪ] 데이, time[taɪm] 타임, oil[oɪl] 오일, house[haʊs] 하우스,
post[pəʊst] 포우스트, dear[deə] 디어, air[ɛə] 에어, door[dɔə] 도
어, tour[tʊə] 투어.
ㄴ. mile[mɑɪl] 마일, toy[tɔɪ] 토이, how[haʊ] 하우.
ㄷ. clover[klɔʊvə] 클로버, program[prɔʊgræm] 프로그램, poster[ˈpəʊstə]
포스터.

5.5. <외래어 표기법>(1986)

5.5.1. 단모음의 표기

표기 일람표에 단모음 [ʌ]는 ‘어’로 적고, [ə]는 독일어의 경우에는 ‘에’로, 그리고 프랑스 어의 경우에는 ‘으’로 적고 그 외는 ‘어’로 적도록 되어 있다.

(40) [ʌ]의 표기

double[dʌbl] 더블.

cut[kʌt] 컷.

cover[kʌvər] 커버.

colour[kʌlə] 컬러.

[ə]의 표기

<영어> minus[mainəs] 마이너스.

bonus[bounəs] 보너스.

calendar[kæləndər] 캘린더.

<독어> Schule[ʃu:lə] 슐레.

Urkunde[u:rkundə] 우어쿤데.

<불어> 규정의 표기 세칙에서 그 예를 찾지 못했음.

그러나 실제 표기에서는 예 (46)과 같이 ‘ʌ’나 ‘ə’를 ‘아’로 적는 경우가 상당수 발견된다.

(41) ㄱ. 어두에서 [ʌ]를 [ㅏ]로 발음하여 표기

double[dʌbl] 더블(따블), cut[kʌt] 컷(카트).

ㄴ. 어중에서 [ə]를 [ㅏ]로 발음하여 표기

(바란쓰)’와 같이 철자에 의한 표기의 영향 및 ‘double ダブル(다부루), member 멤버(멤바), balance 바란스(바란스), boiler 보일러(보이라), center 센터(센타)’와 같이 일본어의 영향일 수도 있다.

모음 [ʌ], [ə]의 ‘ㅏ’ 표기는 외래어 표기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문제되었던 현상으로 철자에 따른 현실 발음을 표기에 그대로 반영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행 외래어 표기에서 철자에 의한 표기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5.5.2. 이중모음의 표기

이중모음에 대한 표기 방법은 제3장 표기 세칙에 언어별로 제시한다. 영어의 경우 각 단모음의 음가를 살려서 적되, [ou]는 ‘오’로, [au]는 ‘아워’로 적는다.

(42) time[tain] 타임, house[haus] 하우스, skate[skeit] 스케이트, oil[oil] 오일,
boat[bout] 보트, roller[roulər] 롤러, pose[pouz] 포즈, tower[tauw] 타워.

이중모음 [ou]의 표기는 외래어 표기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논의되어 온 사항으로, 1941년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 제2절 제9항에 이중모음은 두 홀소리로, 삼중모음은 세 홀소리로 적되, ‘ou’만은 한 홀소리 ‘ㅏ’로 적고, 발음을 길게 읽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후 1948년 <들온말 적는 법> 제13항에는 두겹 홀소리는 두 홀소리로, 세겹 홀소리는 세 홀소리로 적는다고 하여 ‘오우’로 적도록 하였다. [ou]를 ‘오우’로 표기하는 규정은 1958년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다가 현행 <외래어 표기법> (1986)에는 다시 단모음 ‘오’로 적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ou]의 표기 원칙이 표기법에 따라 번복되어 예 (48)과 같이 실제 표기에서는 현행 <외래어 표기법>의 규정과 달리 이중모음으로 표기하는 어휘가 존재하게 된다.

- (43) boat[bout] 보트(보우트), bowl[boul] 볼(보울), pose[pouz] 포즈(포우즈),
hole[houl] 홀(호울), homeroom[houmru(:)m] 홈룸(호움룸).

6. 음장의 표기

6.1.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1941) 이전

장음은 특정 외래어의 경우 의미 분화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외래어를 표기할 때 원음에 충실하기 위해 장음을 의식적으로 표기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다. 표기법이 제정되지 않았던 이 시기에는 문헌 자료에 따라 장음의 표기가 다르게 나타난다.

장음을 표기하는 방법은 (18ㄱ)의 ‘에머어쑤(소년.4.28), 노오웨이(소년.12.98), 루우소우(소년.4.28), 키이쓰(소년.10.60)’와 같이 모음 ‘어, 오, 우, 이’를 거듭하여 표기하거나 (18ㄴ)의 ‘bar 빠-(모던), 뉴-스(동아.1921.4.15)’와 같이 기호 ‘-’를 이용한다.

한편 ‘boy, kiss, love’의 원발음은 [bɔi], [kis], [lʌv]와 같이 단모음인데 장음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이는 강조를 위한 표기 방법인 듯하다. 또한 ‘Robert[rɔbɔrt/rabɔrt] 로버-트(중등)’도 원음은 장음이 아닌데 장음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는 원음에 있는 [r]을 표기하지 않는 대신 장음으로 처리한 듯하다. 장음 표기는 동일 모음의 반복에 의한 표기보다 기호 ‘-’를 이용한 표기가 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일본 외래어의 장음 표기 방식에 영향을 입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44) ㄱ. Norway 노오웨이(소년.12.98), love 러어부(소년.10.60),
Rousseau 루소(소년.3.21)/루우소우(소년.4.28),
boy 쑤이(독립.5.146)/쑤오이(소년.21.37),
Emerson 에머쑤(소년.12.125)/에머어쑤(소년.4.28),

kiss 키쓰(소년.14.53)/키이쓰(소년.10.60)/킷스(소년.17.50),
homerun 홈으런(신동아.1931.67).

나. news 뉴-스(동아.1921.4.15), Robert 로버-트(중등), bar 빠-(모던),
baby 빼비-(모던), service 써-뷔스(모던)/써-비스(모던),
arch 아-취(중등), percent(age) 퍼-센트(신동아.1931.66).

6.2.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1941)

제2장 제1절 제8항에 자음에 장음부(:)가 붙는 일이 있더라도 또한 달리 적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표기법 제정 이전에 시행되었던 장음에 대한 다양한 표기 형태는 사라지게 된다.

(45) beef [bi:f] 비프, dance [da:ns] 단스, sports [spɔ:ts] 스포츠.

6.3. <들온말 적는 법>(1948)

제2장 제16항에 홀소리에 긴소리 표(장음부:)가 붙은 것은 그 홀소리를 하나 더 달아 적는다고 규정하여 장음을 표기에 반영하고 있다.

(46) class[kl:s] 글라아스, glass[gla:s] 끌라아스, mark[ma:k] 마악,
chorus[ko:rəs] 고오러스.

<들온말 적는 법>(1948)은 외국어 원음을 표기에 반영하는 것에 치중하여 1941년 제정된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의 원칙과는 달리 과거 표기법 제정 이전과 동일하게 다양한 표기 양상이 나타나 사실상 외래어 표기의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6.4. <로마 자의 한글화 표기법>(1958)

표기 원칙에 장모음은 동일 모음을 거듭하여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안 적을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 (40)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기에는 대부분의 어휘가 장음을 표기에 반영한다.

- (47) girl[ɡə:l] 거얼(걸), green[ɡri:n] 그리인(그린), Newton[nju:tən] 뉴우턴,
Robert[rɒbət] 로버어트(로벳), bath[bɑ:θ] 바아드, bee[bi:] 비이,
sharp[ʃa:p] 샤아프, shoe[ʃu:] 슈우, curtain[kə:tn] 커어튼,
cream[kri:m] 크리임(크림), form[fɔ:m] 포움, heart[ha:rt] 하이트(하앗),
hall[hɔ:l] 호울.

6.5. <외래어 표기법>(1986)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장모음의 장음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장음 표기에 대한 규정은 제3장 ‘표기 세칙’에 장음이 의미 구별의 기능을 하는 영어와 일본어의 표기에 ‘장모음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고유어나 한자어가 장·단음을 구별하여 표기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외래어도 표기 원칙에 적용한 것이다.

- (48) route [ru:t] 루트, team [ti:m] 팀, bar [ba:r] 바(빠아),
platform [plætfɔ:m] 플랫폼(플랫포움),
Tokyo トウキョウ 도쿄, Osaka オオサカ 오사카.

이처럼 특정 외래어의 경우는 장음이 의미 분화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음 표기에 관해서는 외래어가 유입되기 시작하는 개화기 초기부터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이전의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장음 표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행 <외래어 표기법>(1986)에서는 장음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7. 결론

7.1. 외래어 표기법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외국의 문자 중심으로 표기할 것인가 아니면 소리 중심으로 표기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문제는 일 대 일로 대응되지 않는 문자나 소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관한 우리 외래어 표기법은 비교적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외래어 표기는 ‘소리 중심으로 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글 자모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다.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6장 제60항에서 ‘새 문자나 부호를 쓰지 아니하고, 표음주의 취한다’는 선언한 이래, 중간에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현행 <외래어 표기법>(1986)에서도 이와 동일한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7.2. 외래어 표기법이 변해 오면서, 규정과 더불어 대체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인구어의 유성 파열음은 된소리 표기와 평음 표기가 동시에 나타났으나 평음 표기로 굳어졌다.
- (2) 인구어의 무성 파열음은 평음 표기가 부분적으로 있었으나 거센소리 표기로 굳어졌다.
- (3) 마찰음의 경우 조음체보다는 조음점을 반영한다.
- (4) 음절말 표기는 한국어의 발음 관습에 맞게 7개만 표기한다.
- (5) 모음의 경우는 원어와 한국어의 실제 발음의 차이가 최소화되게 한다.

7.3. 외래어 표기를 통일하자는 노력을 규정의 제정에서부터 60년 이상 계속해 왔지만, 외래어 표기는 아직도 혼란스러운 문제가 많다. 그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언어의 내부적인 것으로, 음운체계의 이질적이고 이에 대한 한국인의 청각적인 인상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둘은 규정에 관한 것으로, 언어를 표기하기 위한 규정 자체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셋은 언중에 관련된 것으로, 제대로 된 규정도 지키지 않는 언중의 무지 내지는 의식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문제를 앞으로 해야 할 과제로 삼기 위해 간단하게 언급하기로 한다.

첫째, 자음에 있어서 한국어는 평음, 된소리, 거센소리 등 3항 대립이 정립되어 있다. 그런데 외국어의 경우 많은 언어가 2항 대립으로 되어 있고, 2항 대립인 언어도 한국어와 1:1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표기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학술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으로 제1항에서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라고 하고, 한글 맞춤법에서는 한글 자모의 스물네 자 중 모음 10개를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외래어 표기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단모음 ‘ㄲ, ㅈ’를 비롯하여 이중모음 ‘ㅅ, ㅆ’ 등 많은 모음들이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그냥 둘 것인가 아니면 관계적인 표현으로 인정하고 그냥 사용할 것인가? 각각의 경우 어떤 문제점이 야기될 것인가. 이에 관한 연구도 앞으로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언중은 외래어 표기법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외래어 표기법이 있는 줄 아는 경우에도 그것을 정확하게 익혀서 배울 생각은 별로 없는 것같고, 더구나 이 방면에 관심 있는 몇몇 분은 자기 식대로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언어와 문자란 인간 존재의 근본이면서 문명사

회의 필수요건이고, 또 그것은 공동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하나의 약속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언중의 무지와 인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혹은 그렇게 할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좀 더 학문적인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7.4.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법 등은 각기 다른 부분을 다루고 있지만,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원리는 동일한 것이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규정에서도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언어와 문자의 동질성과 이질성 그리고 상보성에 대해서도 앞으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신항(1985), ‘근대화 이후의 외래어 유입 양상’, “국어생활” 제2호,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강윤희(1971), ‘개화기의 교과용 도서에 나타난 외래어 표기 실태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8집, 이화여대한국문화연구원.
- 고성환(1998), ‘신문·잡지 분야의 외래어 사용 실태’, “새국어생활” 제8권 제2호,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고영근(1978), ‘외래어 표기’, “언어” 제3권 제2호.
- 김미령(2000), ‘현대 국어 외래어 표기법의 변천’, “현대 국어의 형성과 변천 3” 박이정.
- 김민수(1973), “국어 정책론”, 고려대 출판부.
- 김민수(1979), ‘외래어 표기에 대한 반성과 문제점’, “국어의 순화와 교육”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민수 외 2인(1986), “역대한국문법대계” 제3부 제13책.

- 김세중(1990), '외래어 표기의 변천과 실태', "국어생활" 제23호,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김세중(1993), '외래어 표기 규범의 방향', "언어학" 제15호, 서울: 한국언어학회.
- 김세중(1996),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비판 분석', "새국어생활" 제6권 제4호,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김세중(1998), '외래어의 개념과 변천사', "새국어생활" 제8권 제2호,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김수현(2002), '외래어 표기법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 김완진(1991), '한국에서의 외래어 문제', "새국어생활" 제1권 제4호.
- 김주필(1998), '음운 변화와 표기의 대응 관계', "국어학" 32.
- 김중진(1999), "국어표기사 연구", 서울: 태학사.
- 김형철(1997), "개화기 국어 연구", 마산: 경남대출판부.
- 김홍규·강범모(1997), "한글 사용빈도의 분석", 고려대 민족 문화연구소.
- 민현식(1995), '정서법에서의 발음과 표기의 상관성 연구', "성곡논총" 제26집, 성곡학술문화재단,
- 민현식(1999), "국어 정서법 연구", 태학사.
- 박영섭(1997), "개화기 국어 어휘 자료집 5(외래어편)", 박이정.
- 배양서(1975), '한국 외래어의 원어 판정과 표기', 응용언어학 제7권 제2호.
- 서정수(1988), '서구 외국말의 문제', "국어생활" 제14호,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송철의(1998), '외래어의 순화 방안과 수용 대책', "새국어생활" 제8권 제2호,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신형욱(1996), '외래어 표기법과 나의 의견', "새국어생활" 제6권 제4호,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우메다 히로유키(1991), '일본에서의 외래어 문제', "새국어생활" 제1권 제4호,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유만근(1996), '외국어를 귀화시켜 국어다운 외래어로!', "새국어생활" 제6권 제4호,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이기문(1963), '국어 표기법의 역사적 고찰', 서울: 한국연구원.
- 이기문(1970), '개화기의 국문 연구', 서울: 일조각.
- 이기문(1983), '한국어 표기법의 변천과 원리', "한국어문의 체문제", 서울: 일지사.
- 이봉원(2000), '현대 국어의 자소 빈도 변화 양상', "현대 국어의 형성과 변천 3" 서울: 박이정.
- 이상억(1994), "국어의 표기 4법 논의",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선영(1998), '상호·상표 분야의 외래어 사용', "새국어생활" 제8권 제2호.
- 이은경(1998), '방송 분야의 외래어 사용', "새국어생활" 제8권 제2호.
- 이익섭(1971), '문자의 기능과 표기법의 이상', "김형규송수기념논총".
- 이익섭(1990), '표기법'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 이익섭(1992), "국어 표기법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정복(1998), '컴퓨터 통신 분야의 외래어 사용', "새국어생활" 제8권 제2호.
- 이홍식(2001), '외래어 표기법에 대하여', "성심어문논집" 제23집, 가톨릭대 국어국문학과.
- 임동훈(1996), '외래어 표기법의 원리와 실제', "새국어생활" 제6권 제4호.
- 임홍빈(1996), '외래어 표기의 역사', "새국어생활" 제6권 제4호.
- 전상범(1995), "영어 음성학 개론", 을유문화사.
- 정길남(1992), '개화기 국어의 표기법에 관한 연구', "국어생활" 9호.
- 지춘수(1986), '국어 표기사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
- 石野博史(1989), 「外來語」, 『講座 日本語と日本語教育 - 日本語の語彙・意味(上)』 第6卷 明治書院.
- 文化廳(1997), 『言葉に關する問答集 - 外來語編』 新「ことば」シリーズ 6.
- Catford, J.C.(1988), A practical introduction to phonetics, Oxford: Clarendon Press.

- Ladefoged, P.(1993), A Course in Phonetics :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 Lieberman, Philip & Blumstein, Sheila E.(1988), Speech physiology, speech perception and acoustic phonetic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mpson, G. (1985), Writing Systems : A Linguistic Introduc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 Vachek, J. (1973), Written Language : General Problems and Problems of English, The Hague : Mouton.

<자료>

-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1984), “대한매일신보” 코리아헤럴드사.
- 국립국어연구원(1991), “외래어 사용 실태조사”.
- 국립국어연구원(1992), “국어 어문 규정집”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국립국어연구원(1993), “외래어 표기 용례집” 동구권 지명·인명편.
- 국립국어연구원(1995), “외래어 표기 용례집” 북구권 지명·인명편.
- 국립국어연구원(1995), “기본 외래어 용례집”.
- 국립국어연구원(1995), “한국 어문 규정집”.
- 국립국어연구원(1998), “외래어 표기 용례집”.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주) 두산동아.
- 국어연구소(1986), “외래어 표기 용례집” 인명, 지명편.
- 국어연구소(1988), “외래어 표기 용례집” 일반 용어편.
- 영인간행위원회·사단법인 새생활국민운동협회(1981), “독립신문” 갑을출판사.
- 문교부(1952), “들온말 적는 법” 대한문교서적 주식회사 편수자료(제1호).
- 문교부(1955), “우리말에 쓰인 글자의 찾기 조사(문자빈도조사)”.
- 문교부(1958), “로마 자의 한글화 표기법”.
- 문교부(1959), “로마 자의 한글화 표기 방법, 국정 교과서 외래어 일람표”, 편수자료(제1호).

- 문교부(1959) “외국지명 한글 표기”, 편수자료(제2호).
- 문교부(1963) “사회과 인명·지명 표기”, 편수자료(제4집).
- 문세영(1938), “조선어사전” 대동인쇄소.
- 민중서림(1980), “에센스 영한 사전”.
- 신동아사(1931·1936), “신동아”.
- 이종극(1937), “모던조선외래어사전” 한성도서주식회사.
- 조선어학회(1941),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
- 조선총독부(1933), “중등교육조선어급한문독본”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 종로서적편집부(1992), “외래어 표기법(I)” 글쓰기서당 7.
- 지석영(1908), “아학편”.
- 태학사(1980), “청춘”.
- 한국학문헌연구소(1977), “동광” 아세아문화사.
- 한국학문헌연구소(1977), “국민소학독본” “한국개화기 교과서 총서” 아세아
문화사.
- 현대사(1982), “소년”.